

화요세평



문정기

광주전남대총무회장

십여 년 전 씨잠가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자동화에 관한 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 로봇시스템을 이용한 세계 첫 번째의 시도였지만 결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귀착되고 말았다. 바이러스라는 게 세균에 비해 기생할 정도이니 그 알맹이가 너무도 적어 만일 바람을 타고 직선으로 날아가게 되면 한반도 남쪽 끝 제주도에서 압록강까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인간은 바이러스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때로는 이익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손해가 되기도 한다. 세균하고는 당초부터 다르니 풀인다고 해서, 일린다고 해서 반드시 죽거나 없

어지는 것도 아니다.

식용동물 스트레스에 책임 외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을 태웠으나 아직까지는 전라남도 지역이 이번 구제역에 관한 한 마지막 남은 안전지대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제역 구제를 위한 몇 개의 논리적 모순과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세계 제1의 낙농생산국인 덴마크에서 쓰는 주요 사료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된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거기에서 키우는 젖소의 100%는 구제역과 같은 질병에 노출돼 있다. 사료를 외국에서 들여왔으며 운반과정 중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이런 나라에서는 구제역이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단순비교를 위해서 우리의 돼지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좁은 공간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먹고 자고 낳고 살아있는 기계로서의 역할만을 계속 한다. 암컷의 경우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를 떼어놓고 다시 임신을 시키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해대는 것이다. 야생돼지가 구제

역으로 멸종되었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든가. 우리의 돼지는 스트레스 집합체다. 사람은 이러한 동물로부터 악성 물질을 섭취하게 되고 결국 인간과 돼지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치명적 고리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용동물에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선진국은 이것을 동물복지라 한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과의 인연은 서로에게 무한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이 안전하고 우리가 위험한 건 우리의 책임이다.

또 하나는 정부의 용감무쌍함이다. 소말리아 작전에서 보여준 그 정도쯤, 구제역사태에서 소·돼지 300만두쯤, 연평도사태에서 그까진 북한쯤, 천안함에서의 중국쯤, 307부대 하나쯤, 이런 '쯤'이 구제역의 구제를 힘들게 한다. 또 국가는 국민을 편하게 해줘야 하고 하나의 얼굴 즉, 믿음과 권위가 있는 일관되고 합치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면서 300만 마리의 목숨을 땅에 파묻고 주얼리함의 선원은 그 비싼 비용을 치러 구해내면서도 어떻게 110일째 억류된 금미호 선원은 아직도 내버려 두는지...

국민들은 지도자들의 행동을 통해 국가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가 생기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국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국민이 헛갈리게 두 개의 목소리를 내고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밤과 낮이 다르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 두 가지 싸인을 보내는 행태처럼 '식용 가능한 소나 돼지도 청정국의 명예를 위해서 파묻으면 된다' 하는 게 아닐까.

바이러스에 대한 무지 사태 키워

고속도로 사망사고율이 올라가면 관련 요소를 개선해 줄이는 게 맞지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일반도로로 다니도록 하는 게 옳을까. 천안함, 연평도, 소말리아, 모든 사건은 거의 같다. 국민으로부터 이질감을 일으켰다는 것과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준, 국가를 못 보게 하는 지도자들의 이중적 행동이다. 결국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를 다루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오늘과 같은 문제는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사설

구제역 음성판정 긴장 풀어선 안된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던 전남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음성으로 판정됐다. 혹시라도 양성 판정이 나면 어쩌나 가슴을 졸였던 터라 반감이 그지없다. 하지만 당장 오는 오후부터 시작될 설 명절 민족대이동이 걱정이다. 긴장의 끈을 놓을 경우, 언제든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음성 판정으로 끝이 났지만 이번 구제역 의심신고는 한바탕 흥역을 치르기에 충분했다. AI로 인해 일선 축산농가와 예방활동을 펼친 공무원들은 이미 과감치가 된지 오래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터라 더욱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설 명절 민족대이동이 구제역 예방의 고비가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향이 시작된 어제부터 고속도로와 국도 나들목 등에 있는 이동통제 초소에 인력을 보강하고 축산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구제역이 사람에게 의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 들인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한 접종을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달 30일 영국과 독일 등지에서 구제역 예방 백신 150만두 분량이 도착, 이미 우리 지역에 1차 접종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정밀 관측과 신속한 신고가 필수다.

무엇보다 구제역이 전파될 수 없도록 원천적인 차단방역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전남도 등은 전 공무원을 동원해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으나 AI 방역과 한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구제역은 한번 발병하면 그 지역 전체가 초토화 된다는 점을 감안,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다.

진정성 의심되는 현역의원 지역구활동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설을 앞두고 부랴부랴 의정보고회를 갖는가 하면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빨라지는 행보는 내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예년과 다른 지역구 활동을 보면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상당수가 그동안 지역구를 방치했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 물갈이론, 세대교체론이 힘을 얻음에 따라 의원들이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으리라 본다. 사전에 호감도를 높이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느닷없는 의정보고회와 지역구행사 참석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의원은 현 임기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의정보고회를 열었으며 또 다른 의원은 주말이면 마을

목욕탕과 경로당 등을 찾으며 아예 지역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하루에만 10여 마을을 순회하는 농촌출신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예산확보 노력과 결과를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의원도 있다.

평상시에 소홀하던 주민과의 접촉이 늘어난 데 대해 시선은 좋지 않다. 고작 임기가 1년여 남았는데 그동안엔 뭘 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말이다. 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역구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면 비난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선거구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지역구 활동을 안일하게 하다가 물갈이론, 세대교체론이 불거지자 등 떠밀리듯 한 행보를 보이는 의원은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선거만을 바라볼 뿐 자신을 선택한 선거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선거구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내년 선거에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

기자수첩

지역민심 제대로 읽기

설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귀향활동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회기간 점을 감안해 지역구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증가 하면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의 모습을 보기 힘들다.

특히 설 연휴를 이용한 귀향활동은 더없는 홍보의 장이 된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출향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치 얘기가 빠질수 없다.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에서 듣고 접한 정치 이야기는 설연휴 후 헌법에 복귀하면서 곧 그 지역에서 광범위한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고향에서 보고 들은 얘기가 생활현장의 여론으로 정착돼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다. 의원들이 명절 연휴 귀향활동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들이 일찌감치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민과 접촉을 강화하고 민심을 정취한다는데 이익을 제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귀향활동이 설 또는 추석 등 명절에 집중되고 관에 박힌듯한 행사 일색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역의원 20명의 귀향 활동을 보면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매년 경로당과 어린이 집,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의원들의 귀향활동에 차



강병운
서울취재부장

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명절때면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연중행사라 전락한 느낌마저 든다.

한 의원은 귀향활동을 차별화 하면서 내실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문제는 이같은 정치 이야기는 설연휴 후 헌법에 복귀하면서 곧 그 지역에서 광범위한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귀향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민심에 대해 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명절 귀향활동 뒤 의원들을 취재 하다 보면 나쁜 이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많다. 어떤 의원은 지역민의 좋은 이야기만 모두 옮겨 놓기도 한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귀향활동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독자광장

귀성차량 교통법규 준수 절실

우리 고유의 명절 때마다 민족대이동으로 차량정체 현상이 되풀이되고 교통사고도 증가 됐다. 더군다나 이번 설날은 연휴기간이 길어 차량이동이 다른 때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에 있는 가족, 친지를 만나는 설례임과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 부당추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자주 눈에 띄고 있다. 또한 장시간 운전에서 오는 피로를 풀지 않고 무리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다. 사고와 직결되는 운전자의 행동으로 이외에도 많다. 과속질주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한 손으로 곡예운전을 해 낸다. 이 모두는 운전자와 차내 탑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을 때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복잡할수록 질서를 지키면 여러 사람이 편하게 되고 교통사고도 예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설날 귀성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설날 귀성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는 교통사고로부터 내 가족을 보호하고 타인의 귀성 길까지 즐겁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산이파출소장 임순기

구제역 농가보상금 시기 예방하자

구제역 사태로 소, 돼지를 살처분하고 통곡하는 농민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구제역 보상 농가가 늘어나면서 보상금을 노린 사기전화가 가슴을 부리고 있어 혹시나 축산 농민들이 피해를 입진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구제역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지를 중심으로 축협 직원 등을 사칭, 피해농가에 살 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지급을 빙자하여 통장번호, 비밀번호등을 요구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등장해 자식 같은 가족을 잃고 큰 시름에 빠진 축산 농가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축협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화로 계좌번호를 묻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일이 없다고 하니 이러한 전화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구제역으로 축산·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식당,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족 살처분·매몰로 가족이나 마을이 아픈 축산농가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전남지방경찰청 제 17동대 최명갑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가족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른다. 60년생 부질없는 일을 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 72년생 어두웠던 일 다 잊고 새로운 출발하라. 84년생 만남 자체는 아예 없는 것이 됨.



卯

39년생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이해할 것. 51년생 생가지도 앓던 사람이 출현 한다. 63년생 매사에 대충하지 말고 정신을 집중하라. 75년생 서로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다.



辰

42년생 허욕을 부리면 큰 것을 놓치니 분수에 맞게 처신. 54년생 주판대로 일을 처리하면 통한다. 66년생 흐릿하게 처신하지 말고 깔끔하게. 78년생 공상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



巳

45년생 활기찬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라. 57년생 구관이 명관이니 옛 것을 지켜라. 69년생 어느 때보다 여행을 조심하고 처신을 잘 하라. 81년생 이성으로 인한 말쟁을 주의하라.



丑

49년생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 61년생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 신용을 중요시. 73년생 쉬쉬한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85년생 돈소문은 믿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寅

40년생 분수를 지켜야 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52년생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표현을 확실히 하라. 64년생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 76년생 상사의 도움을 받아라.



申

43년생 도움받을 일은 협조 부탁함이 좋을 듯. 55년생 모든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아라. 67년생 지나치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자 피할이 좋다. 79년생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酉

46년생 일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58년생 상대방과 관한 대립은 피하고 인내심을 가질 것. 70년생 어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82년생 귀를 열어 두면 조언이 도움 된다.



寅

50년생 관재 구설의 시비를 주의해야 할 하루. 62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임을 명심할 것. 74년생 힘이 들더라도 오늘은 참고 견딜 것. 86년생 현재 위치를 고수함이 좋을 듯.



巳

41년생 가까운 사이라도 말조심할 것. 53년생 변화를 주기 보다는 현재대로 유지하면 좋다. 65년생 느는 것은 걱정뿐이니 밖에 나가 보라. 77년생 초지일관한 자세를 견지하라.



子

44년생 자손에게 지혜나 돈을 빌려줄 수 있다. 56년생 가만히 있어도 지출이 많아진다. 68년생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면 화를 부른다. 80년생 결정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말 것.



丑

47년생 이웃에게 도움을 과감하게 요청하라. 59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71년생 예상치 못한 즐거운 소식이 전해온다. 83년생 좋은 벗은 큰 자본이 된다.

2월 1일 (음 12월 29일)

- 전화 : (062) 720-1075
- 팩스 : (062) 720-1080-82
- 이메일 : jndn@chol.com

긴급전화

- ▷ 여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절명상담 133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자원센터 1388
- ▷ 아동학대 예방센터 1577-1391
- ▷ 노인학대 예방센터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39
-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생활정보전화

- ▷ 우체국 민원 1300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자원봉사센터 1365
- ▷ YWCA가정법률상담소 527-0011
- ▷ 인광 알곡을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가정위탁지원센터 351-1206
- ▷ 수도 고장신고 123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 광주종합버스터미널(ARS) 360-8114
- ▷ 월드컵안내 1544-7788
- ▷ 대한항공 광주공항 942-0111
- ▷ 아시아나 광주공항 941-5511
- ▷ 전국여객선터미널 1544-1114
- ▷ 전남도청 (061)286-2000
- ▷ 광주시청 223-3000
- ▷ 전남대병원 220-6900
- ▷ 조선대병원 220-3114



머@세상

■ 부부끼리 둘러서

부부가 가족 전시장에 갔다. 첫 황소의 안내문에는 '지난해 교미 50번' 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일년에 50번을 했대요. 당신도 배워요." 라고 했다. 다음 황소는 '지난해 65회 교미'로 적혀 있었다. "한달에 다섯번도 더 돼네요. 당신도 배워야 해요." 라고 했다. 마지막 황소에는 '지난 해 365번 교미'라고 적혀있었다. 여자는 입이 딱 벌어지며 "어머, 하루 한번이네요. 당신은 정말 배워야 해요." 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보고 ...

"어디 365일을 똑같은 암소랑 하는 지 가서 물어 봐요. (*")"

■ 전문대

노처녀가 친척 소개로 맞선 보는 자리에 나타났다. 어두컴컴한 커피숍 맨 구석에 남자가 미리 와 있었다. 상대편 남자는 별로 마음에 들지않았지만, 지금 잔밥 더운밥 가릴 형편이 아니었다.

남자가 말했다. "저- 전문대도 팬찮겠습니까?" 아하, 이 남자 전문대학교 밖에 못나왔나보구나. "에, 전문대면 어때요, 팬찮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 여자 옆으로 옮겨와서 여자의 가슴을 마구 문대는것이 아닌가. "아니 왜 이러세요?" 여자가 놀래서 소리치자 "찢을 문대도 팬찮다고 했잖아요"